

■ ■ ■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1.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2. 2020년도 세워진 일꾼들과 재정을 위하여
3.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6. 사무처리회를 위하여
7.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8.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9.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10.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11.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타코마 베데스다순복음교회 - 조요셉 목사

■ ■ ■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 ▶ 동아시아 50개 교회/Peter An
- ▶ 방송 선교지원
- ▶ 노숙자 등지 선교회
- ▶ 아프리카 우물파기
- ▶ 이완구 장학사업
- ▶ 샤론센터
- ▶ 한국선원 선교회

해외 선교 지역

-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 쿠바(정경석)
- ▶ 니카라과(해밀턴)
-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 잠비아(Emile)
- ▶ 말레이시아(고인섭)
- ▶ 터키(이성숙/자슈아)
-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기독교 기관 선교

- ▶ 미주 남침례회 SBC
-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 한인국내선교부
- ▶ 한인해외선교부
-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 밀알선교단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목사

SINCE 1975

2020년 7월 5일

섬김이 문화가 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예배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본당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본당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11:00AM / 본당
사랑부 예배 (장애인)..... 11:00AM / 베들레헴

영아부 예배 9:2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2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베들레헴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한어청년 1:30PM / N-201



수요일예배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본당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유년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금요일모임

Youth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한어부 월-토 / 6:00AM / 본당
영어부 월-토 / 6:00AM / N-202

www.tfbc.org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일에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남궁곤 목사

- * 경 배 와 찬 양
- 1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21장 “다 찬양하여라”
3부: “만유의 주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나는 믿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 기 도
- 1부: 인숙명 집사
3부: 이재찬 집사

- 봉헌/성가대찬양
- 1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3부: “찬양의 심포니” 혼성 중창팀

공 동 체 소 식

- * 성 경 본 문 시편 132:1-5

제 목 “눈을 감아도 보이는 교회”

말 씀 선 포 전우일 목사

- * 응 답 찬 송 1,3부: “순례자의 노래”

- * 축 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 (잠언 19:17)

지난 주일 설교 Last Sunday Sermon

□ 제목: “충성과 풀무불”

□ 본문: 다니엘 3:16-2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충성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변치 않은 충성과 믿음은?

첫째, 이들은 변명도 타협도 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16절)

세 명의 친구들은 타협을 위한 어떠한 변명을 대지도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있게 자신들의 신념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타협하지 않았던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둘째, 이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7절)

세 명의 친구들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에 대한 고백은 18절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의심도 갖지 않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자신들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을 구해 주실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환란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내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느냐 봐서 내가 한 번 해 보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신앙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의 신앙을 좌지우지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을 예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을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결과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희생과 결과가 뒤따라 온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풀무불이었습니다(19-23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도 그 다음은 풀무불일 때가 더 많습니다. 큰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풀무불을 만납니다.

히브리서 11:36-37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그리고 학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큰 풀무불에 우리의 믿음을 집어 던져, 태워 버려 없애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5절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였지만, 또한 이러한 환난과 학대를 이긴 자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의 문화가, 절대권력의 느부갓네살왕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충성,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세상에 동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혹시 주님께서 지금 당장 구해주실지라도, 아니면 혹시 지금 당장 그분이 구해주지 않으실 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당차고도 확신이 가득한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위대한 세 친구들의 신앙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 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적용 질문]

1. 신앙생활 중 내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 충성된 믿음에도 ‘풀무불’이 찾아왔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3.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요?

조심이 안심

대학가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의 상술은 대단하다. 진짜인 듯 진짜가 아닌, 진짜 같은 가짜 교리를 가지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청년.대학생을 현혹한다. 문제는 유사품을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율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2월 JMS 교주 정명석이 전자 발찌를 차고 출소한 후, 대학가에서 위장 동아리들이 적극적인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정명석이 성범죄로 수감 생활을 했지만, JMS 신도들은 자신들의 주님이 감옥에서 부당하게 고난받았다고 믿는다.

대학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단 단체인 박옥수 구원파의 국제청소년연합(IYF)의 활동도 주목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IYF는, 종교 활동 보다는 문화 활동을 내세운다.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거나, 해외 봉사단이나 어학 연수를 내세워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라시아스합창단 공연에 학생들을 초대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 기독교 청년들은 건전한 기독교 동아리를 만나기도 전에 IYF의 포스터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신천지의 위장 활동도 대학가 주변에서 교묘하고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교 선배를 자처하며 새내기들에게 접근해 관계를 형성한 후, 신천지 교리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대학가에는 독서 모임, 카페 행사, 악기 레슨, 문화 행사 등을 내세운 정체불명의 신천지 홍보물이 즐비하고, 심지어는 학교 주변 서점은 물론이고 교내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신천지의 소위 '모락' 포교의 텃이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정체를 감추고 공식적인 동아리의 모습으로 가면을 쓴 신천지가 교내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가 이단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을 현혹한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 가는 청년들을 일자리 미끼로 유혹하고,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최신 문화 코드로 다가가 이단 교리를 주입하며, '소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친밀한 관계 형성을 미끼로 이단의 울무를 씌운다.

청년은 한국 교회의 내일이다. 그들의 이유 있는 주장과 고민을 성령 안에서 포용하지 못하고 '순종과 불순종'의 잣대로 바라보는 한, 이들의 교회 이탈을 막을 수 없다. 미래 교회의 주역인 청년이 존중받을 때, 우리는 이단에 효과적으로 응전할 수 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학교 교회사 교수, 월간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
생명의 삶 2018년 10월호에서 발췌

수요성령예배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 도 서광순 집사
제 목 [그리스도안에서의 참 자유 시리즈 17]
"예수의 흔적"

성 경 본 문 갈라디아서 6:11-18

말 씀 선 포 전우일 목사

■ ■ ■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	인숙탱 집사	1부	김정숙 집사
	3부	이재찬 집사	3부	이호영 집사
	수요	서광순 집사	수요	임숙깁빈 집사
주차장	가능한 안전을 위해서 본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교회 로비에서 온도체크를 받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			
	헌금(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7/ 5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7/12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7/19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 ■ ■ 사역스케줄 Ministry Calendar

2020년 7월	2020년 8월
----------	----------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희 교회를 방문/등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VIP 6주 과정을 필히 마쳐야 하며, 과정을 마친 성도는 의무적으로 예수마를 공동체(소그룹 모임)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SERVING CHURCH

섬 김 이 · 문 화 가 · 되 는 · 교 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정부에서 6월 18일에 실내예배에 대하여 200명 까지 모임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함에 따라, 6/21부터 우리교회도 20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계속 따라주셔야 합니다. 주정부 지침에 따라 교회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7:40AM), 2부 예배(9:20AM), 3부 예배(10:50AM)
- * **수요예배 안내:** 한어부(7PM, 본당), 영어부(7PM, 안디옥)
- * **유스/영어청년부 주일예배:** 11AM(안디옥)
- * **주일 2부/3부/수요성령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각 가정에서 동시간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새벽예배 안내 :**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당분간 새벽예배는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 *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1. **2020년 우리교회 표어는 "섬김이 문화가 되는 교회"**입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갈라디아서 강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 를 주제로 진행중입니다.
3.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진급 안내 : 7/5(오늘) 예배부터는 진급**하여 해당하는 부서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7월호 구입 안내:** 생명의 삶(7월호) 구입 신청을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5/권당 (한영)
5. **헌금 안내:** 아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온라인 헌금 :** 우리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신용카드와 데빗카드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헌금액 x 2.69% + \$0.30)
 - ② **우편 헌금:** 우편을 이용하여 교회로 보내주세요. 되도록 체크(Check)로 헌금해 주시고, 이름과 항목을 헌금봉투에 반드시 기록해 주세요.
 - ③ **현장 예배 참석하여 헌금:** 본당에 입장하기 전, 로비에 있는 헌금함에 직접 헌금해 주세요. 예배 시간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6. **C-Drive:**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을 돕는 사역을 진행중입니다.
 - ① 기부물품 후원: 화장지, 생수, 음식 캔, 손세정제, 마스크, 라면, 쌀 등
 - ② 항목 헌금: 성도와 이웃, 그리고 미주 한인침례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항목 헌금
 - ③ C-Drive 사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담당 사역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 당분간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아 놓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 ◇ **TFBC 예배 캠페인:** 집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다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 온라인 예배 드릴 장소를 미리 정하여 정돈하기
 - 2) 예배 10분 전부터 함께 앉아 기도로 준비하기
 - 3) 평소 주일과 같은 복장으로 예배 참여하기
 - 4) 핸드폰은 진동(무음) 모드로 설정하기
- ◇ **새벽예배 설교 (오늘의 말씀)**
말씀묵상을 돕기 위하여, 생명의 삶 본문으로 새벽예배 한어/영어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에 업로드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 **새벽예배 본문**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7/6(월)	시편 140:1-13	정주영 목사	7/7(화)	시편 141:1-10	정주영 목사
7/8(수)	시편 142:1-7	남궁곤 목사	7/9(목)	시편 143:1-12	남궁곤 목사
7/10(금)	시편 144:1-15	전우일 목사	7/11(토)	시편 145:1-13	전우일 목사

◆ 교우동정(Compassion) ◆

- ◇ **중보:** George Guy, Ken Adkins, Rick Dollar, Eric Mose, Conard Goering, Tom Bradley, 양례깁스, 김현숙, 문선프라임, 성경 엠브리, 김정분, 박화숙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주일 금 주
오찬 다음주 봉숙오글(어머니 1주기)

※ **2020년 전교인 천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한 그루 나무 심기란, 교회 주차장 및 배수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작정헌금이며, **1,200불로 나무 한그루를 심는다는** 비유로 **작정예물을 드리는 캠페인**입니다.
(작정헌금시 **한그루 나무심기 봉투(녹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1,000그루/\$1,200,000 (한 그루당 \$1,200)

현 작정현황: 1,002그루/\$1,202,400
현 헌금액: \$1,202,116